

# 李白的《蜀道難》에 나타난 藝術性 考

郭 利 夫\*

## 目 次

- I. 序 論
- II. 《蜀道難》의 藝術性
- III. 結 論

## I. 序 論

詩仙 李白(701~762)은 唐詩의 絶頂期인 盛唐代 뿐만아니라 全時代를 通해서도 中國의 偉대한 詩人이며, 一生동안 壯年期에 翰林院 生活를 잠시 한 것을 제외하고는 名山 大川을 돌아다니며 적지않은 不朽의 名詩들을 남겼다.

그의 《蜀道難》은 七言을 基調로 하여 三言의 短句로부터 十一言의 長句에 이르기까지 參差不齊한 詩句를 形成해 냈다. 그는 該博한 知識과 高度의 藝術性, 豐富한 想像力과 誇張의 表現으로 中國文學 史上 屈原 以後에 浪漫主義 詩人이 되었다.

本 作品은 秦에서 蜀으로 가는 周圍의 山川을 神話等を 通해서 描寫했다. 또한 比興 手法으로 蜀道の 險峻함을 빌어서 世上 萬事가 平坦치 않음도 象徵的으로 썼으므로 解析의 多樣性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後世 學者들의 見解가 紛紛하여, 本人의 拙稿 《李白的 蜀道難에 대한 提言》에서 作意와 製作時期 等に 대해서 論述한 바가 있다.<sup>1)</sup>

李白的 《蜀道難》은 가장 광범위하게 流轉되어 왔으니, 그것은 本 詩가 思想 內容面과 藝術 技巧上 空前의 發展이 있었기 때문이다. 故로 《蜀道難》을 段落別로 細分하여 分析 研究함으로써, 그 內容의 全面을 把握할 수 있고 藝術性을 또한 探索할 수 있겠다.

\* 人文大學 助教授

1) 拙稿 《李白的 蜀道難에 대한 提言》, 濟州大學校 論文集, 第三十輯, 1990.

本稿에서는 李白의 《蜀道難》을 통해 浪漫主義의 激情과 獨特한 思想의 表現 등을 糾明하여 그의 藝術의 力量과 內容의 特異함을 考察해 보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II. 《蜀道難》의 藝術性

李白은 少年期에 蜀에서 雄志를 품고 學業에 專念했다. 그 때의 李白에 대해서 《潛確數書》에 노파가 석절구공이를 갈아서 바늘로 만들겠다는 말을 듣고, 그는 覺醒하여 學業에만 沒頭했다는 〈磨杵作針〉이란 故事가 있다.

또한 그는 成都를 中心으로 蜀의 여러 地方과 山川을 漫遊하면서 任俠한 精神과 豪氣도 길렀다. 少年期의 生活狀은 위대한 詩人의 滋養分이 되었다.

李白의 《蜀道難》은 1200餘年間 天下의 絶唱으로 公認받아 왔다. 그것은 蜀道の 山水를 無味乾燥하게 寫生한 것이 아니고, 그의 特異한 藝術的 創造와 獨特한 風格으로 調和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藝術性を 論證하는데, 六段落으로 나눠 그 첫 段落을 보겠다.

噫吁嚱！危乎高哉！

蜀道之難，難于上青天！

[아이쿠！위태롭고 높기도 하구나！

蜀으로 가는 길 험난함은 푸른 하늘 오르기 보다 어렵구나！]

詩의 첫 句부터 氣勢가 騰騰하여 一般의인 山이 아님을 直感케 하고 있다. “噫吁嚱”란 感歎詞를 써서 強烈하고 깊은 感情을 表出하고 있다.

感歎詞란 平坦치 않은 感情을 表示하는데 驚歎, 疑訝, 賞讚, 讚嘆과 또한 悲傷, 哀惜, 憤怒, 歡樂 等도 나타낸다. 古代 漢語에서 例를 보겠다.

文惠君曰：‘誦！善哉！技蓋至此乎！’（《莊子·養生主》）

[文惠君께서 “어이쿠！ 잘 한다！ 네 기술이 정말 훌륭하도！” 라고 말했다.]

噫嚱！成王！既昭假爾。（《詩經·周頌·噫嚱》）

[거룩하도다！ 成王의 큰 덕이여！ 밝은 그 빛 천하에 가득하도다.]

“噫吁嚱”는 噫吁嚱, 依需西, 噫嚱嚱 혹은 衣虛乎라고도 쓴다. 실체는 蜀인들이 위험한 사태에 直面했을 때 驚異의 嘆聲으로 내는 土俗의인 말, 즉 方言이었다. 土俗語를 첫 句부터 쓰는 대담성은 例外的인 것이다.

方言이란 말은 西漢代 楊雄의 《方言》에서 中國 最初로 사용했다. 楊雄의 所謂 “方言”이라고한 것은 “通語”에 대한 相對的인 말인데, “通語”는 “通名”, “凡語”, “凡通之語”, “四方之通語”라고

도 하며 모두가 사용 범위가 비교적 넓게 쓰이는 單語이다.<sup>2)</sup>

方言(dialect)은 地域方言과 社會方言으로 大別할 수 있는데, 地域方言이란 것은 言語의 地域變體인 것이다. 特殊한 地域方言을 씀으로써 語氣와 感情을 더 짙게 할 수 있다. 方言은 時代의 變遷에 따라 生成消滅과 語音上의 浮沈이 있게 된다.

李白이 “噫吁嚱”란 方言을 씀으로써 最強의 獨立成句로 天下에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 그의 感歎詞인양 전해지고 있다.

“危乎高哉”는 句末 語氣助詞 “呼”와 “哉” 두 개를 사용함으로써 強烈한 感情의 色彩를 드러나게 하는 效果를 내고 있다. 古代 漢語의 例를 보겠다.

子曰：“已矣乎！吾未見能見其過而內自訟者也。”(《論語·公治長》)

[孔子께서 “한심하도다! 나는 아직까지 자기의 잘못을 보고도 스스로 마음 속으로 自責할 수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다.]

“若寡人者，可以保民乎哉？”(《梁惠王·上》)

[寡인 같은 사람도 백성을 사랑하고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한 文章이나 한 詩句에서 이어 쓴 두 개의 語氣詞는 各各 語氣의 뜻을 지니게 된다. 古代 漢語에서는 많이 보이지만 現代 漢語에서는 일반적으로 存在하지 않는다.

“蜀道之難，難于上青天”은 誇張(誇飾) 手法으로 蜀道の 山勢가 雄壯하고 奇怪하여 險峻한 險路임을 忽然히 나타냈다.

所謂 誇張이란, 對象物의 한 特徵 즉 性質, 狀態, 數量 혹은 程度 等の 方面으로부터 誇大하게 혹은 誇小하게 故意的으로 表現하는 것이다. 豐富한 想像力을 發揮하여 誇張함으로써 事物의 特徵을 더욱 充分하게 描寫하며 感情을 表現하게 된다. 鮮明하게 突出된 事物의 한 特徵을 讀者들에게 보여줌으로써 最大의 滿足을 주게 된다. 誇張은 가끔 詩人이 精選된 詩語로도 至極한 事物의 特徵을 表現하기 困難할 때 사용되는 藝術의 手段인 것이다. 또한 그것은 詩歌에서 言語를 形象化하는 重要한 수단이다. 성공적으로 쓰여진 誇張은 往往 詩句의 形象을 鮮明한 印象을 讀者들에게 준다. 誇張 詩句는 李白의 詩에서 많이 볼 수 있다.<sup>3)</sup>

“君不見黃河之水天上來，奔流到海不復回！  
君不見高堂明鏡悲白髮，朝如青絲暮成雪！”(李白《將進酒》)

[그대는 못 보았는가 하늘에서 내린 황하의 물이  
바다에 쏟아져 흘러 다시는 되돌아 가지 못함을!  
그대는 못 보았는가 맑은 거울속에 백발을 슬퍼하는 높은 집 주인이  
아침에 청사 같던 머리가 저녁에 흰 눈이 된 것을!]

2) 周振鶴, 游汝杰 著, 《方言與中國文化》 p.4. 上海人民出版社, 1987.

3) 大野實之助 著, 《李太白詩歌全解》 p.310. 早稻田大學出版部, 1981.

“白髮三千丈，綠愁似箇長”(《李白 秋浦歌 十五首》)

[백발 삼천장 길이는  
슬픔 때문에 자랐으리.]

이 詩句들이 強烈한 印象을 讀者들에게 주는 것은 詩人이 誇張의 藝術手段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李白의 特技이다.<sup>4)</sup>

또한 “蜀道之難，難于上青天”을 重疊(重復 혹은 反復)手法을 썼는데 連續重復(連續反復)이 아닌 間接重復(間隔反復)을 開端部, 末端部에 各各 三回나 씌으로써 全詩歌의 核心으로 삼고 있다.

重復(反復)의 特點은 故意로 어떤 單語나 句節을 重復시킴으로써 作者가 전달하려는 意思를 強調하고 感情을 突出시키는 것이다. 그 종류는 連續重復과 間接重復이 있으니, 論語에서 例를 보겠다.

子曰：“桓公九合諸侯，不以兵車，管仲之力也。如其仁！如其仁！”(《論語·憲問》)

[孔子께서 “桓公이 채후들을 규합하는데 兵車같은 무력을 쓰지 않은 것은 管仲이 힘썼기 때문이다. 어질도다! 어질도다!”라고 말씀하셨다.]

子曰：“天何言哉！四時行焉，百物生焉，天下言哉！”(《論語·陽貨》)

[孔子께서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네 계절이 철에 따라 바뀌어 가고, 萬物이 철에 따라 자라고 시들지만,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위의 <憲問>篇은 連續重復으로, 그 特點은 같은 文句를 文章에서 連續으로 써서, 중간에 다른 語句를 쓰지 않아 間隔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陽貨>篇은 間接重復으로, 그 特點은 反復으로 쓰인 語句의 中間에 其他의 語句나 段落을 써서 間隔을 두어 反復으로 쓰이는 것이다.

詩人은 “蜀道之難，難于上青天”을 間接重復으로 썼으니, 마치 大地의 深層部에서 熔岩이 噴出하여 地上은 물론 九天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같다. 그것은 混沌의 世界라고 하겠으니 가히 破格的인 重復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雄渾하고 豪邁한 奇想을 基調로 삼았다.

故로 第一段落에서는 大自然의 序章으로 蜀道の 雄大함과 詩人의 雄渾한 奇想을 混合시킨 旋律이니, 全詩의 序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다음 第二段落에서 蜀道の 地理形勢를 表現하고 있다.

鷲叢及魚鳧，開國何茫然！

爾來四萬八十載，不與秦塞通人煙。

4) 大野實之助 著, 上掲書, p.680.

5) 大野實之助 著, 上掲書, p.195.

西當太白有鳥道，可以橫絕峨眉嶺。  
地崩山摧壯士死，然後天梯石棧相鉤連。

[잠총과 어부  
蜀나라 세운지 아득하구나!  
그 이래로 四萬八年  
秦나라와 왕래 없었네.  
서쪽 太白山 오직 새만 오고갈뿐  
아미산 정상 가로 질러 올랐고  
산무너져 장사와 미녀 죽어  
그후 높다란 사다리 절벽 잔도만이 연결되었네.]

詩人は 不可思議한 神話故事와 歷史傳說로 至難하고 神奇하게 表出했다.

“蠶叢”과 “魚鳧”는 上古時代 蜀國의 國王이었다는 傳說들이 있다.

“蜀王之先，名蠶叢，栢灌，魚鳧，蒲澤，開明。是時，人民椎髻，不曉文字，未有禮樂，從開明上至蠶叢，積三萬四千歲。”(楊雄《蜀王本紀》)

[蜀王의 先祖로는 이름을 蠶叢·栢灌·魚鳧·蒲澤·開明이라는 분들이 있었다. 이 때의 백성들은 머리의 털을 싸메어 둥그런 뿔치를 만들기도 했지만, 말은 함부로 하였고 文字를 몰라서 禮樂이 없었다. 開明으로부터 蠶叢까지는 三萬四千年의 세월이 흘렀다.]

“魚鳧獵蒲山，得道乘虎而去，杜宇遂繼魚鳧。秦惠王滅蜀，封公子通爲蜀侯。惠王二十七年，使張儀築都城，後置蜀郡，以李冰爲守。冰穿兩江，爲人開田，百姓享其利，蜀人始通中國。”(《成都記》)

[魚鳧는 蒲山에 사냥하러 나갔다가 得道하여 호랑이를 타고 가버리니 杜宇가 魚鳧의 王位를 계승했다. 秦의 惠王이 蜀을 멸망시키고 公子 通을 蜀의 諸侯로 封했다. 惠王 二十七年에 張儀로 하여금 都城을 쌓도록한 이후에 蜀郡을 두었고 李冰에게 守備케 하였다. 李冰은 두개의 江을 파니 백성들이 밭을 갈고, 그 利點을 享有하였고 드디어 蜀人은 中國과 交通이 시작되었다.]

原來 “神話”라는 말은 近代에 끌어 들인 한 外來概念의 單語이니, 그 由來는 希臘의 mythos이며 뜻은 神話, 傳說, 傳記 等이라 하겠다.

神話는 上古時代의 사람들이 世界起源, 自然現象과 生活의 原始的인 理解를 故事와 傳說로 反映한 것이다. 故로 그것은 想像과 幻想에 많은 도움이 된다. 世界의 많은 國家와 民族은 各各 原始社會時期의 開國神話나 英雄豪傑의 神話를 만들어냈다. 古代 文明國일 수록 神話가 豐富하고 多彩롭다.

中國에는 數 많은 神話가 古代 著作中에 保存되어 있으니 《山海經》, 《淮南子》, 《列子》, 《韓非子》, 《莊子》, 《楚辭》等이 있다. 이것들은 想像이 奇異하고 感動的인 神話, 傳說들이니, 그것을 통해서 上古時代의 社會, 文化, 歷史의 面貌나 百姓들의 生活狀況과 思想, 感情等을 斷片的으로 類推해 볼 수 있다.

李白은 一連의 感歎의 詩句를 쓰고 나서 蜀道의 險難함을 描寫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神話傳說

로 시작했다. 그는 “蠶叢”과 “魚虎”라는 두 분의 古代 蜀國의 王이 開國하고 나서 數萬年동안 中原과 隔絶된 狀況을 나타냈다. “蠶叢”에 대해서는 아직도 <古蠶叢氏墓>가 成都의 聖壽寺 西쪽, 金花橋 東쪽에 古迹으로 남아 있으니 전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sup>6)</sup>

“四萬八千歲”는 西漢末이 楊雄(字:子雲)이 <蜀王本紀>에서 “三萬四千歲”라고 했는데, 李白은 “一萬四千歲”를 더하여, 그렇게 年代가 悠久하고 悠遠함을 誇張手法으로 形容한 것이다.

“秦塞”는 四方이 山으로 둘러 싸여 있어서 要塞化되어 있는 秦의 天然의 地勢를 말한 것이다. 지금의 陝西省이며 山이 많고 險峻하였기에 그런 名稱이 붙었다. 故로 上古時代부터 崇山의 險隘한 天然의 障礙物로 因해서 蜀國과 秦國과는 一切 人煙이 없었으니, 곧 相互往來가 없었다.

“太白”은 太白山이니 지금의 陝西省 南쪽 20km 지점에 位置해 있고 漢江과 渭水의 사이에 있으며 秦嶺山脈의 主峯으로 海拔 3,767m이니 關中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勿論 여기서는 山의 名稱으로 썼지만, 李白은 “太白”을 다른 意圖를 지닌 含蓄性이 짙은 뜻으로도 사용한 것 같다.

太白星은 金星의 옛 이름으로 太陽界의 第二 行星으로 太陽 달다음으로 밝은 天體이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日·月 및 金·木·水·火·土를 합쳐서 七政 혹은 七曜라고 했다.<sup>7)</sup> 金星은 초저녁과 새벽에만 빛나는데, 저녁 서쪽 하늘에서 빛날 때는 개밥바라기, 太白星, 長庚星이라 하고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반짝일 때는 샛별, 啓明星, 明星이라고 한다. 金星과 明星을 除外하고는 星字를 빼서 그냥 太白, 長庚, 啓明이라고도 했다. <詩經>에 “東有啓明, 西有長庚.”(東쪽에는 啓明이 있고, 西쪽에는 長庚이 있다)라는 句가 있다.

李白은 太白과 關係가 있으며, 그의 出生時에도 神祕한 傳說이 있다.

公之生也, 先府君指天枝以復姓, 先夫人夢長庚而告祥, 名之與字.

[李白이 출생할 때 父親이 天國의 나뭇가지를 가리키어 李라는 姓을 회복했고, 母親은 長庚星(太白星)이 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아들을 낳았으니, 그것은 吉夢이라 하여, 이름은 白, 字는 太白이라 했다.]<sup>8)</sup>

李白의 先祖는 隴西 成紀(지금의 甘肅省 天水市 附近)사람이라고 하지만 확실치 않고, 대략 隋末에 그의 遠祖가 죄를 지어 中央 아시아로 도피했다. 그는 中央 아시아의 碎葉城(지금의 蘇聯領土)에서 태어났으니 武則天(則天武后)의 長安元年(701)이었다.<sup>9)</sup>

李白의 父親이 唐 神龍 初(750年 경)에 蜀으로 몰래 率家하여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그곳은 綿州 彰明縣(지금의 四川省 江油縣) 青蓮鄉이다. 그곳에 대한 애착으로 青蓮居士라고 스스로 號를 삼았다. 그가 어려서 공부했던 곳이 太白岩인데, 四川省 萬縣市에 있다. 그러나 太白과 李白은 많은 연관이 있다고 하겠으니, 그의 <登太白>에서 “太白積雪六月天”이라는 俗語(諺語)가 생

6) 傅崇矩 編 <成都通覽·上冊> p.20. 巴蜀書社, 1987.

7) 徐文學·張樂和 編著, <中國古代文化知識百題·上冊> p.344. 工人出版社, 1987.

8) 范傳正 <李公新墓碑>

9) 郭沫若 著 <李白與杜甫> p.3. 人民文學出版社, 1972.

졌다.<sup>10)</sup> 즉 五六月 炎天에도 높은 太白山 봉우리에는 눈이 쌓여 있어서 鼓角을 울리면 疾風暴雪의 눈사태가 난다고 하는 말이 전한다. 또 그가 배를 타고 노닐던 陪江의 岸壁에 있는 동굴을 太白洞이라고 하며 四川省 江油縣 武都鎮에 있다.

“蛾眉嶺”은 “蛾眉山”(혹은 蛾媚山)이며 四川省 峨眉縣 西南쪽 7km 지점에 있고 海拔 3,099m이다. 유명한 산으로 浙江의 普陀山, 安徽의 九華山, 山西의 五台山과 함께 佛教의 四大名산의 하나이다. 山勢가 구불 구불하며 가늘고 길어서 쌍쌍매미와 같이 이마가 넓고 나방이처럼 눈썹이 아름다우며, 가늘며 길고, 예쁘고 요염해서(“如嬈首蛾眉, 細而長, 美而豔”) 그러한 名稱이 되었다. 峨眉山은 大峨, 二峨, 三峨로 區分되어 있고 山麓에서 頂上까지는 약 50km나 되는데 溫度差가 15℃나 된다. 峨眉山은 天下에서 가장 빼어난 山(峨眉山天下秀)이니, 李白은 一生을 두고 戀戀하여 《峨眉山月歌》, 《峨眉山月歌送蜀僧入京》, 《登峨眉山》 등의 詩作品을 남기고 있다. 또한 李白이 采石磯의 捉月台에서 江에 비친 달을 잡기위해 投身自殺했다는,<sup>11)</sup> 安徽省의 翠螺山에 있는 八角亭을 그가 長江을 바라보며 作詩했다고 하여 蛾眉亭이라고 命名되어 전하기도 한다.

長安에서 보전데, 西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秦國의 太白山과 蜀國의 峨眉山 사이에는 너무 險難하여 오직 한 마리의 새가 겨우 날아서 넘을 수 있는 길뿐이니 사람의 足跡은 一切 없었다고 하겠다.

“地崩山摧壯士死”는 典故를 쓰고 있으니, 春秋戰國時代 蜀人이 中原과의 道路를 開通시켰다는 神話的인 五丁開山 傳說이 있다.

天爲蜀生五丁力士, 能徙山. 秦王獻美女與蜀王, 遣五丁迎女, 見一大蛇入山穴中, 五丁共引蛇, 山崩. 壓殺五丁, 秦女皆化爲石, 而山分爲五嶺.

[하느님이 蜀國에 다섯 壯士들을 태어나게 했으니, 그들은 능히 산을 옮길만큼 力士들이었다. 秦의 惠王이 蜀을 멸망시키기 전에 蜀王이 好色함을 알고 다섯 명의 美女를 보내자, 蜀王은 다섯 壯士를 보내어 美女들을 영접토록 했다. 돌아오는 길에 梓潼에 이르자 큰 뱀이 땅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장사 한 사람이 그 꼬리를 잡아 당겼으나 힘이 딸리니, 장사 다섯 사람이 힘을 합쳐 뱀꼬리를 잡아 당기자 산이 무너져 蜀의 壯士들과 秦의 美女들은 壓死당했으니, 그들이 化石이 되어 五嶺이 생겨 났다.<sup>12)</sup>

이처럼 많은 희생이 있고서야 비로소 길이 트였지만, 그것은 人馬가 通行할 수 있는 道路가 아니고 깊은 계곡에서 하늘에 오르도록 걸쳐 놓은듯한 높은 사다리와 비슷한 棧道를 만든 것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曲折 많은 蜀道에 대하여, 詩人은 先人들의 극심한 고통의 代價로 自然을 征服한 偉大性을 讚嘆했다. 이러한 神話的인 傳說을 引用함으로써 蜀道이 由來와 百姓들의 勞苦를 무리없이 混合시켜 藝術的 매력을 增強시켰다.

특히 李白은 蜀의 開國神話와 蜀道の 歷史性을 誇張法으로 描寫했고, 太白과 峨眉에 대하여 남

10) 張基權 編《李太白》p.83. 太宗出版社, 1978.

11) 五代 王定保《唐摭言》: “李白着宮錦袍, 遊采石江中, 傲然自得, 傍若無人. 因醉入水中捉月而死.”

12) 揚雄《蜀王本紀》

다른 애정을 표시했다.

이어서 地形과 地勢에 적절하게 利用해 걸쳐 놓은 棧道가 秦에서 蜀으로 가는 道路이기에, 그 위태로움과 아슬아슬함을 詳細히 서술한 第三段落 첫 부분을 보겠다.

上有六龍回日之高標，下有冲波逆折之回川。

黃鶴之飛尚不得過，猿猱欲度愁攀援。

[위로는 六龍의 해수레로 돌아선 高標山

아래는 기암괴석을 굽이치며 세차게 흐르는 계곡

황학도 날아 넘을 수 없고

원숭이 마저도 잡고 넘을 수 없어라.]

秦에서 蜀에 이르는 산길과 水路의 무서운 광경을 쓰고 있다.

“六龍”은 古代神話로 天子의 수레를 끄는 여섯 말의 美稱으로 六馬라고도 하는데, 그 뜻이 轉하여 天子가 타는 수레를 말한다.

……爰止羲和，爰息六嬭，是謂縣車。

[이리하여 羲和는 멎쳤고, 그러니 六嬭도 休息을 취했으니 이를 縣車라고 한다.]<sup>13)</sup>

羲和는 傳說上의 人物로써 太陽을 실은 馬車를 부린다는 馭者이고, ‘嬭’는 龍이지만, 그 色相이 노란 龍을 말한다.

日乘車，駕以六龍，羲和御之，日至此而 薄于虞泉。羲和至此之龍。

[太陽을 모신 해수레를 六龍이 끌도록 했고 羲和가 이를 몰도록 했는데 해가 虞泉에 이르자 어두어졌다. 羲和는 이곳에 이르러 해수레를 돌렸다.]<sup>14)</sup>

“高標”는 高標山이며 高望山이라고도 하는데 蜀에서 가장 높은 표적이 되는 산이라고 해서 해수레 마저도 넘을 수 없는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형용하여 그런 名稱이 붙었고, 四川省 樂山縣 城內 서쪽에 위치해 있다.

“衝波逆折”은 세차게 흐르는 江물이 바위나 절벽에 부딪치니 逆流도하고 旋回하여 흘러 내리는 것이니 깊은 계곡 물의 急流를 형용하여 물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黃鶴”은 <辛氏賣酒逢仙>이라는 傳說에서 仙人이 黃鶴을 타고 높이 날아 神仙世界로 갔다고 하여 後世 사람들은 黃鶴을 吉祥物로 여겼다. 그래서 그곳에 高樓를 지어서 黃鶴樓라고 불리워졌다. 黃鶴樓는 武昌의 蛇山 西端의 黃鶴磯(지금의 武昌 大橋 附近)에 있는데, 湖南의 岳陽樓와 江西의 滕王閣과 함께 江南 三大樓閣이라고 稱하는 유명한 名勝古跡이다. 詩人은 一舉千里했다는 黃

13) 《淮南子·天文訓》

14) 《淮南子》〈許慎·注〉

鶴과 黃鶴樓에 대해서 많은 詩를 썼다.<sup>15)</sup>

“猿猴”는 모두 원숭이인데, “猿”은 팔이 길고 휘파람을 잘 불고 줄을 잘 타고 넘는 일반적으로 원숭이고, “猴”는 원숭이 일종으로 사람과 비슷하며 特히 蜀에 많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쓴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서는 蜀道の 山上은 “六龍回日之高標”이며 山下는 “冲波逆折之回川”이니 “高”와 “險”으로 山勢를 描寫했다. 이처럼 險難한 山勢이기에 千里나 飛翔한다는 黃鶴이나 산을 잘 탄다는 猿猴마저도 못넘는다고 형용했다.

계속해서 三段落의 두째 부분을 보자.

青泥何盤盤，百步九折繁岩巒。  
 捫參歷井仰脅息，以手撫膺坐長嘆。  
 [천니령은 어찌나 아득하고 아찔한지  
 걸음마다 곡절 많은 길이네.  
 星辰을 만질 것 같아 숨소리마저 죽어  
 주저앉아 앞가슴 쓸어내며 길게 탄식만 하네.]

“青泥”는 青泥嶺을 말하며 甘肅省 徽縣의 南側, 陝西省 略陽縣 西北方에 있는 산으로 甘肅에서 四川으로 들어가는 重要한 關門이다. 青泥嶺의 千仞斷崖와 雲雨는 行人의 옷을 흠뻑 적시며 항상 진창 길이기에 그런 名稱이 붙었다. 그러나 本意는 陝西省(秦)에서 四川省(蜀)으로 通하는 劍閣山에 있는 棧道를 叙述하고자 青泥를 引用한 것이다. 險難한 山勢, 泥土, 沼澤과 雲雨에 가린 頂上과 꼬불꼬불한 길이 산을 감싸고 도니 行人은 백 걸음에 아홉번은 돌아야만 한다. 그것도 岩石이나 草木이라도 붙잡아야만 하는 險路다.

青泥嶺 산봉우리는 얼마나 높은지 손만 뻗으면 星辰들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높다고 하여 天文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中國의 古代 百姓들은 長期的으로 天象을 觀測하는 가운데 점차로 일종의 恆星의 區分을 體系化했다. 그래서 二十八宿을 두게되었다.<sup>16)</sup>

春秋戰國 時代 以後에 사람들은 天上의 星宿와 地上의 州나 國에 對應시켰으니, 天上의 一定한 區域의 天體現象을 갖이고 地上의 一定한 地區의 吉凶을 豫測했다. 이것은 星宿의 分野라고 하는데 中國 古典文學作品에 가끔 쓰였다.

‘捫參歷井仰脅息’中的 “參”과 “井”은 各各 星宿의 名稱이다. 參宿는 益州(蜀地로 지금의 四川省)이고, 井宿는 雍州(秦地로 지금의 陝西省)이다.<sup>17)</sup>

15) 李白 《江上吟》, 《黃鶴樓送孟浩然之廣陵》, 《江夏贈韋南陵冰》, 《鸚鵡洲》, 《與史郎中欽聽黃鶴樓上吹笛》 등이 있는데, 杜甫는 岳陽樓의 詩篇이 많다.

16) 姚麟園, 主編 《中學語文教師手冊》 p.892. 上海教育出版社, 1986.

17) 姚麟園, 上揭書, pp.894~895.

詩人은 感慨無量하게 靑泥嶺의 曲折 많고 험한 山路를 “百步九折”로, 高山峻嶺의 崎險한 景觀과 星座에 몸이 얽혀 있는듯 한 것을 “擘參歷井”으로 描寫했다.

第三段落의 셋째 부분을 보겠다.

問君西遊何時還？畏途巉岩不可攀！  
 但見悲鳥號古木，雄飛雌從繞林間。  
 又聞子規啼夜月，愁空山。  
 蜀道之難，難于上青天，使人聽此凋朱顏。  
 [축나라 가는 길손이어 언제 돌아오겠오?  
 험준한 돌길 오르기 두렵네/  
 오직 고목에서 슬픈 새울음만 들릴뿐  
 암컷은 수컷따라 숲속을 오고가네  
 듣노니 달밤의 두견새 소리  
 빈 산을 더 수심스럽게만 하네  
 축나라 가는 길 험난함은  
 푸른 하늘 오르기 보다 어렵구나  
 말만 들어도 얼굴 빛 새파랗게 질리네.]

여기서는 山勢와 景物의 抒情으로 濃厚한 感情的 色彩를 나타내고 있다.

“子規”는 울음 소리가 마치 “不如歸去”처럼 들린다고 하여 不如歸라고 하는 益鳥다. 또한 杜宇, 杜鵑, 歸蜀道, 杜魄, 望帝, 望帝魂, 蜀鳥, 蜀魂, 두견새라고도 하며 蜀地方에 많다. 子規의 生態는 숲속에서 둥지를 짓지 않고 단독으로 살며 꼬리等的 旣 새 집에 한 개의 알을 낳아, 그 새가 부화하여 기르도록 내맡긴다. 울음 소리가 哀切하여 듣는 사람에게 고향을 그리게 하는 斷腸의 슬픔을 상징하는 새이다. 韓國에서는 소쩍새로 널리 알려져 있다. 傳說로는 古代蜀國의 國王인 杜宇의 靈魂이 杜鵑이 되었다고 한다.<sup>18)</sup> 杜鵑은 中國文學에서 비유적으로 많이 引用되는 새이나, 李白도 詩를 남기고 있다.<sup>19)</sup>

“凋朱顏”은 蜀道가 얼마나 험한지 듣기만 해도 紅顏, 童顏은 창백하게 失色할 정도로 무섭고 아찔하다. 이처럼 險阻한 길을 “問君西遊何時還”이라고 하여 反問法을 사용했다. 語氣와 語意를 強調해서 확정된 뜻을 의문의 形式으로 表出했다.

여기서 “問君西遊”는 咸陽이나 長安에서 서쪽인 蜀으로 떠나는 친구에게 기탁하는 放浪客의 旅愁에 찬 心思를 여실히 내보였다. 蜀道를 “畏途巉岩不可攀”으로 무섭게 형용하고서, “子規啼夜月”과 “悲鳥號古木”으로 空寂과 淒涼함을 점점 짙게했다. 다시 한번 “蜀道之難，難于上青天” 하

18) 《太平御覽·蜀王本紀》：“杜宇……乃自立爲蜀王，號曰望帝.”  
 《十三州志·杜宇(望帝)》：“乃委國禪懿冷，號曰開明，遂自亡去，化爲子規.”  
 19) 李白, 《宣城見杜鵑花》  
 杜甫, 《杜鵑行》  
 韋應物, 《子規啼》

는 反復 咏嘆을 하여 더욱 感受性을 深化시켰다.

꾸불꾸불한 數百里의 蜀道, 가면 갈 수록 더 險巖한 情景이 나타나는 深山溪谷을 묘사한 第四段落을 보겠다.

連峯去天不盈尺，枯松倒掛倚絕巖。  
 飛湍瀑流爭喧豨，砢崖轉石萬壑雷。  
 其險也如此，嗟爾遠道之人胡爲乎來哉！  
 (연이은 산봉우리 하늘과 맞닿은듯  
 천년노송' 기암괴석에 매달린듯  
 내달는 여울 퍼붓는 폭포수 요란함 다루고,  
 벼랑치고 바위 굴러 온 골짜기 우뢰소리  
 봉우리 골짜기마다 울퉁불퉁뿐인데  
 천리 먼 길 오신 나그네여 어이타 여기까지 왔소!)

눈 앞에 綿綿히 늘어선 산봉우리 마다 너무 높아서 하늘과는 一尺도 안 되는듯, 山勢가 높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여서 古松이 절벽마다 뻗뻗하니 들어차 있어 거꾸로 매달린듯 보인다. “飛湍”은 물살이 急流여서 나는듯 흐르고, “瀑流”은 千仞斷崖에서 퍼붓는듯한 폭포수이고, “爭喧豨”는 急流와 폭포수의 떠들썩한 소리로 서로 경쟁이나 하는듯한 광경이다. “砢崖轉石”은 깊은 계곡의 急流가 절벽과 바위에 부딪히고 작은 岩石과 돌맹이를 굴리는 소리이며, “萬壑雷”는 모든 계곡마다 急流, 瀑布, 轉石이 配合되어 우뢰 소리의 음향을 내고 있다고 형용하고 있으니 萬壑爭雷, 즉 골짜기마다 우뢰소리의 大小를 경쟁하는듯한 모습이라 하겠다.

詩人은 여기서 먼저 다른 것에 對比하는 手法으로 山勢의 높고 험한 것을 그리고 난 다음 連峰과 枯松으로 靜的인 風景을 서술하고 이어서 動的인 “飛湍瀑流爭喧豨”와 “砢崖轉石萬壑雷”로 계곡의 轟烈한 場面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으로써 “蜀道之難”의 참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놀래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험을 잃게 하고있으니 強烈한 藝術的인 효과를 얻고 있다.

詩人은 또한 連山의 起伏과 連峯의 하늘과 맞닿은듯한 모습을 遠景으로 描寫하고나서 絕壁의 枯松을 奇異하게 썼다. 靜中動의 手法으로 急流, 瀑布, 낭떠러지, 돌 구르는 소리 등을 配合시켜 깊은 골짜기의 우뢰와 같은 音響을 나타내어, 사람들의 고요한 마음을 격동케 하고 있다. 高揚에서 沈潛으로, 沈潛에서 高揚으로 變化시키는 詩의 格調를 形成해서 波瀾의 起伏을 深化시키고 山川의 視覺과 聽覺的인 場面을 特殊하게 交織시켰다.

이처럼 蜀道の 崎嶇한 難行이니 西行하는 나그네는 사라지고, 沿邊에 있는 要塞化 地域으로 讀者들을 引導하는 第五段落을 보겠다.

劍閣崢嶸而崔嵬，一夫當關，萬夫莫開。  
 所守或匪親，化爲狼與豺。  
 朝避猛虎，夕避長蛇。

磨牙吮血，殺人如麻，  
 錦城雖云樂，不如早還家。  
 [우뚝우뚝 솟은 높은 검각  
 한 명만 관문 지켜도  
 수 많은 적 뚫지 못하네.  
 파수병이 일가친척이라야지  
 언제 이리 승냥이 될런지.  
 아침엔 호랑이 피하고  
 밤엔 긴 뱀을 피해도  
 늘 이를 갈아 피마시는 흡혈귀 같다네.  
 비록 금성이 좋아도  
 일찍 집에 돌아감만 못하리.]

蜀國의 地政學的 位置를 서술하면서 特異한 地形으로 要塞化되어 있는 “劔閣”에 대하여 歷史的인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

“劔閣”은 四川省 劔閣縣의 북쪽 25km 지점인 劔門山에 있으며 옛부터 蜀道의 要衝地였다. 劔門山은 大劔山이며 古稱은 梁山 혹은 高梁山이라 했고, 山脈이 東西로 100여km나 되고 七十二峯이 면면히 이어져 있다. 起伏이 심해서 예리한 칼 날처럼 이루어져 있고 산마다 우뚝 솟아 있어서 劔閣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고, 또한 劔門關 혹은 劔門이라고도 한다. 劔閣에 대해서 옛부터 많은 詩·賦가 있었다.

李白的 《劔閣賦》가 있는데,<sup>20)</sup> 賦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는 15세에 奇書를 읽었고 司馬相如를 능가하는 賦를 지었다고 한다.<sup>21)</sup>

劔閣의 중요성에 대해 읊은 前代 詩人의 作品을 보겠다.

惟獨之門。作固作鎮，  
 是日劔閣，壁立千仞。  
 窮地之險，極路之陵。  
 ……  
 一夫荷戟，萬夫越趨。  
 形勝之地，匪親勿居。  
 [오직 축으로 통하는 외 길  
 견고해서 屯營이 되었네  
 그래서 劔閣이라 불렀네  
 가파른 절벽 천 길이나 우뚝 솟아.  
 인적 드문 험난한 땅.]

20) 拙稿 《李白的 蜀道難에 대한 提言》濟州大學校論問集，第三十輯 參照。

21) 李白，《贈張相鎬 二首詩》：〈十五歲觀奇書，作賦凌相如〉

세상 끝 길의 험준한 곳,  
 :  
 대장부 한 사람만 지켜도,  
 만 명의 적군 뚫지 못하네,  
 지형이 가장 좋은 곳이니,  
 일가친척이 아니면 안되네.<sup>22)</sup>

劍閣의 양쪽에는 칼날같은 산이 우뚝 솟아 있어서,自古로 天然的인 要塞이다. 곧 한 사람이 막으면, 적군이 만 명이라도 뚫지 못하는 곳이다.<sup>23)</sup> 또한 杜甫도 오직 하느님만이 이곳을 만드셨으니 세상에서 가장 웅대하고 훌륭한 곳이라고 읊었다.<sup>24)</sup> 三國時代 蜀의 宰相 諸葛亮이 劍閣에 兵營을 두어 國境을 守護했다는 것은 유명하다.

“崢嶸”은 산이 높고 險峻한 형세이고 “崔嵬”은 산이 險隘하여 우뚝우뚝 솟아 울퉁불퉁한 모양이니 모두 劍閣의 奇險함을 형용하고 있다.

“匪親”에서 “匪”는 非이니, 劍閣은 守備하는데 가장 중요한 곳이니 皇帝의 肉親이나 親族이라야만 된다는 뜻으로, 많은 詩人들이 읊어 豫見한 바가 있다.

“化”는 變節하여 背反한다는 말이고, “狼與豺”은 이리나 승냥이로써, 그 動物的인 屬性上 반드시 언젠가는 背反하니 叛亂者 즉 封建軍閥을 지칭하고 있다. 그 當時에는 異民族 出身者들로 軍閥을 형성케하여 邊境地帶에 駐屯시켜서 守備토록하는 “以夷制夷” 政策을 쓰고 있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詩人은 再次 심심한 우려를 表示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唐代的 蜀地는 邊方地帶의 山勢가 험한 僻地여서 실제로 “猛虎”나 “長蛇”가 많았으니, 前句의 “狼與豺”로 比喻하여 재앙이 잠복해 있다는 것을 暗示하고 있다. 또 “朝”와 “夕”, “猛虎”와 “長蛇”로 蜀道의 天然的인 利點과 惡政이 있을 수 있음을 示唆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磨牙”는 어금니를 갈아 날카롭게 윤기를 내는 것이며, “吮血”은 피를 吸入하여 드러마시는 모양이다. “如麻”는 亂麻처럼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니, 軍閥이나 貪官汚吏들에 의한 살벌한 분위기의 형세라 하겠다.

여기서는 劍閣의 要塞를 深遠한 歷史意識과 政治 형세를 結合시켜 激情的으로 묘사해 냈다. 唐天寶 元年은 玄宗皇帝의 治世30년째가 되는 해이다. 太平時代로써 太宗의 貞觀之治에 대해서, 玄宗皇帝의 左右에 있으며 보좌한 宰相 姚崇, 張說, 韓休, 張九齡에 依해서 開元之治가 착착 그 성과를 올리고 있었던 時期이다. 太平盛代의 最高 絕頂에서는 반드시 그 背後에는 動亂이 움트는 것이니 詩人은 그러한 裏面狀을 걱정했던 것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蜀道難의 主題를 더 深化시킨 효과를 나타냈다.

“錦城雖云樂”의 “錦城”은 바로 四川省 成都의 別稱이다. 三國時代 物産이 풍부하다고 하여 蜀

22) 晉代 張載《劍閣銘》

23) 左思, 《蜀道賦》:〈一夫守隘, 萬夫莫開.〉

24) 杜甫, 《劍門》:〈惟天有設險, 劍門天下壯〉

錦이란 名稱이 붙었고, 또한 江山이 비단(錦)같이 美麗하다는 뜻으로 名稱이 되었다. “雖云樂”은 古詩에 <客行雖云樂, 不如早旋歸>라는 詩句의 換骨奪胎라고 하겠다. “錦城”에 대해서는 <益州記>와 <元和志>에 斷片的으로 記述되었기에, 그 位置와 沿革等を 상세히 살펴 보겠다.

우선 成都(錦城)의 氣候를 살펴 보면;

成都緯度在赤道北三十度三十八分, 經度偏西十二度十六分, 故氣候溫和, 寒熱適度, 晴雨亦均, ...  
 ... 成都冬寒極時, 華氏表不過四十度, 夏暑熱時不過九十度至九十六七度.

[成都는 위도 북위 30도 38분이고 경도 서경 12도 16분이어서 기후가 온화하고 한기와 서기가 적당하며, 맑은 날과 흐린 날이 고르다. ... 成都의 겨울은 가장 추웠을 때가 華氏 40도에 불과하고 여름은 가장 더웠을 때가 華氏 90도 내지 96~97도에 불과하다.<sup>25)</sup>

또 成都의 沿革을 보면;

禹貢梁州之域, 古爲蜀國. 周失紀綱, 蜀侯蠶叢在蜀稱王. 愼靚王五年, 秦滅蜀, 置蜀郡, 治成都. 漢亦曰蜀郡, 屬益州. 後漢初, 公孫述據之稱王, 都成都, 改蜀郡爲成都尹. 漢兵平公孫述, 仍爲蜀郡. 興平初, 劉焉自綿竹徙治成都. 建安末, 昭烈帝建都于此. 魏景元四年入魏, 晉太康中改爲成都王國. ... 後周置總管府. 隋開皇中, 廢郡廢州, 置西南道行台, 三年復總管府, 大業元府廢, 仍爲蜀郡. 唐武德元年置益州總管府, 三年罷府置西南道行台, 九年罷行台置都督府, 貞觀元年置劔南道, 龍朔二年大都督府, 開元二年置劔南經略使, 七年升節度使, 天寶元年復曰蜀郡, 十五年駐蹕于此, 至德二年改成都府置南京, 分爲劔南西川節度使, 上元元年罷京.

[《書經》의 《禹貢篇》에 나오는 梁州지역을 古代에는 蜀國이라 稱했다. 周代에 紀綱이 문란해지자 蜀의 諸侯인 蠶叢이 蜀에서 王이라고 稱했다. 愼靚王 五年에 秦이 蜀을 멸망시키고 蜀郡을 設置하여 成都를 다스렸다. 漢代에도 蜀郡이라 했고 益州에 所屬시켰다. 後漢 初에 公孫述이 여기서 亂을 일으키고 王位에 올랐고, 成都를 都邑으로 삼고 蜀郡을 成都尹이라고 改稱했다. 漢나라 政府軍이 公孫述을 쳐서 平정시킨 다음에 여전히 蜀郡을 두었다. 興平初에 劉焉이 綿州로부터 成都에 옮겨와서 다스렸다. 建安 末에 昭烈皇帝(蜀漢의 始祖인 劉備)는 이곳에 都邑을 삼았다. 魏의 景元 四年에 魏에 편입되었고, 晉 太康年間에 成都王國이 되었다. ... 後周代에 總管府를 설치했다. 隋 開皇年間에 郡과 州를 폐지했고 西南道行台를 설치했고, 三年 후에 다시 總管府를 두었고, 大業 元년에 總管府를 폐지시키고 蜀郡을 다시 설치했다. 唐 武德 元年에는 益州總管府를 두고, 三年에 西南道行台를 두었다가 九年에는 그것을 없애고 都督府를 두었다. 貞觀 元년에 劔南道를 설치했고, 龍朔 二年에 大都府로 승격시켰다. 開元 二年에 劔南經略使를 설치하고, 七年에 節度使를 두었다. 天寶 元년에 다시 蜀郡이라 했고, 十五년에 玄宗皇帝가 安史의 亂에 피난처로 삼았다. 至德 二年에 成都府를 改稱하여 南京이라 했으며 劔南·西川節度使를 各各 두었고, 上元 元년에 南京을 폐지시켰다.]<sup>26)</sup>

李白은 錦城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어 《登錦城散花樓》等の 作品을 남기기도 했다.

25) 傅崇矩 編, 前揭書, p.1.

26) 傅崇矩 編, 上揭書, pp.3~4.

蜀道難을 高揚시킨 다음 침울한 양상으로 咏嘆한 마지막 六단락을 보겠다.

蜀道之難，難于上青天，側身西望長咨嗟。

축나라 가는길 험난함은

푸른 하늘 오르기보다 어렵구나

몸 비껴 서쪽 보니 탄식만 나올뿐.

“蜀道之難，難于上青天”을 反復의 手法으로 다시 末端部에서 咏嘆하고 있다.

錦城은 漂泊하며 一生을 보내는 詩人, 즉 首邱初心의 대상지이고 咸陽이나 長安의 西南 方向이므로 “側身西望”이라고 했고, “咨嗟”는 功業을 이루고 錦衣遺鄉치 못하는 者의 長嘆息이고 深刻한 失路者의 窮相에 대한 典型的인 表現이라고 하겠다.

여기서는 蜀道の 어려움을 재삼 확인시키고 失意에 찬 放浪客의 恨憤을 友人의 蜀行에 混合시켜 묘사했다.

### Ⅲ. 結 論

李白은 變化無雙한 筆法으로 自古로 險難한 蜀道를 描寫하는데, 새로운 境地를 開拓했다고 하겠으며 藝術上으로도 崢嶸, 高峻, 崎嶇, 參差한 面貌를 發展시켰다. 詩의 첫 句부터 噫吁戲라는 蜀의 方言을 과감하게 쓰면서 讀者들을 蜀으로 引導했는데, 그것은 詩人의 藝術성을 더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었다. 이어서 危乎高哉라는 感歎의 詩句로 놀라게 하고 蜀道之難，難于上青天으로 더욱 魂魄을 빼앗고 있다.

처음 方言으로 始作하여 感歎과 誇張 그리고 神話로 蜀道の 險難함을 突出시켰다. 蠶叢과 魚鳧의 開國神話와 五丁力士의 蜀道神話 등을 混合시켜서 描寫해 낸 修辭技法은 사람을 咏嘆케 한다. 또한 “連峰去天不盈尺”, “上有六龍回日之高標”, “一夫當關，萬夫莫開”란 것은 誇張으로 神話와 巧妙하게 結合시켜 蜀道の 山峰과 關門의 要塞를 險峻한 곳으로 描寫했다. 이러한 것은 豐富한 想像力과 神話 色彩의 誇張 手法은 深厚한 現實의 基礎에서만 可能한 것이다. 故로 強烈한 藝術的 感化力을 지녀서, 讀者들에게 神話 世界에 進入케 하는듯 하며 高山 峻嶺에 몸이 얽혀 있는듯 하게 한다.

李白은 樂府詩가 特技이며, 現存하는 約 1000首의 詩에서 樂府題를 사용한 것이 約 150首가 있으니, 약 6분의 1을 차지하는 셈이다. 그는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 낸다. 樂府 格律이 비교적 寬大하고 형식이 自由로워서 奔放한 思想과 感情을 表出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蜀道難에서 字數가 三言에서 십지어는 十一言이나 되는 詩句를 사용했으니 奔放한 言語의 風格을 이뤘다. 이러한 參差不齊한 長短句의 交替 運用과 韻律의 一連三換의 變化는 詩歌의

藝術的 表現力을 풍성케 하여 思想과 藝術面에서 進一步한 것이니, 成熟과 完美의 意境이라 하겠다. 故로 一唱三嘆케 하는 까닭이라고 하겠다.

李白의 《蜀道難》은 樂府題를 그의 풍부한 思想과 傳說로 새로운 이미지를 한껏 飛翔시킨 萬古 絕唱이라 하겠다. 또한 詩人은 當時의 政事에 대해서도 不安感을 “所守或匪親”로 表現했으니, 그것이 現實로 나타난 것이 安史의 亂이니, 邊方의 심상치 않은 局面도 내 보였다. 本 作品을 통해서 李白의 高度의 藝術的인 風格과 政治上의 豫見, 敏感性을 찾아 볼 수 있어서, 浪漫主義 特征과 中國詩歌 發展史上 위대한 공헌을 했다. 故로 그의 代表作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東西 古今을 통해 比興手法과 放浪客의 失心의 樣相을 讀者들에게 強烈한 共鳴을 불러 일으켜 悲憤慷慨한 不朽의 詩篇이 되게 하였다.

## 參 考 文 獻

## 1) 單行本

- 裴斐：李白詩歌賞析集，巴蜀書社，1988。  
 林庚：唐詩綜論，人民文學出版社，1987。  
 馬昌儀(編)：中國神話故事論集，中國民間文藝出版社，1988。  
 涂文學·張樂和(編著)：中國古代文化百題(上)，工人出版社，1987。  
 中國唐代文學會：唐代文學研究，第一輯，山西人民出版社，1988。  
 余冠英(主編)：中國古代山水詩鑑賞辭典，江蘇古籍出版社，1989。  
 劉鍵(主編)：中國歷代詩歌類編，江南教育出版社，1988。  
 魏怡：詩歌鑑賞入門，湖南文藝出版社，1988。  
 胥樹人：李白與他的詩歌，上海古籍出版社，1984。  
 王運熙·李寶均：李白，上海古籍出版社，1989。  
 大野實之助：李太白詩歌全解，早稻田大學出版部，1981。  
 久保天隨：李太白全詩集，日本圖書，1988。  
 李錫浩：李太白斗 道教，集文堂，1981。  
 張基樞：李太白，太宗出版社，1978。  
 安旗：李白縱橫探，陝西人民出版社，1983。  
 郭沫若：李白與杜甫，人民文學社，1972。  
 王漫宇(編著)：修辭格的應用，中國物資出版社，1986。  
 高島俊男：李白と杜甫，東京：評論社，1972。  
 詹鏞：李白詩論叢，人民文學出版社，1984。  
 宋刊本影印：李太白全集，台北 東方書店，1960。  
 景仁文化社影印：舊唐書(上·下)，新唐書(上·下)，서울 景仁文化社，1977。  
 傅崇矩(編)：成都通覽(上·下) 巴蜀書社，1987。

## 1) 論文

- 喬象鍾：李白的詩論及藝術實踐(上·下)，唐代文學論叢 第一期，二期，陝西人民出版社，1982。  
 胡國瑞：李白詩歌中的現實主義與浪漫主義，唐代文學論叢，第一期，1982。  
 房日晰：論李白詩歌中感情表現的特色，李白研究論叢，巴蜀書社，1987。  
 王定超：《蜀道難》別論，李白研究論叢，巴蜀書社，1987。  
 鄭臨川：李白《蜀道難》新解，李白研究論叢，巴蜀書社，1987。

朱金城·朱易安：從李白《蜀道難》看詩歌的興寄，李白研究論叢，巴蜀書社，1987.

王尚文：試談李白詩歌中的一些藝術形象，李太白研究，台北 里仁書局，1985.

王運熙：略談李白蜀道難的思想與藝術，李太白研究，台北 里仁書局，1985.

## Summary

Reflections on the Artistry in Li Pai(李白)'s *the hard road to Shu* (蜀) — Modern Sichuan (四川)

Kwak Ih-boo

Li pai(李白 : 701~762AD)'s *the hard road to Shu*(蜀) is a work described by mixing his strong feeling with the beauty of the water and mountain, exquisite and wonderful. In this poem he used freely myths, interjections, dialects, counterquestions and repetitions. In addition, on the basis of seven-syllable lines, he used freely from three-syllable lines even to eleven-syllable lines. Even from the very first line of the poem he began with an idiolect, his own personal dialect. Followed by a series of interjections, the poem showed a strong sense of emotion and amazement. In the third phrase, "A wild, steep road, more dangerous than even trying to climb the heavens" is repeated again and again in the middle and at the end of the poem. This is the main cadence all over the poem, and thus it has the effect of providing wonder and awe to the readers.

By using a series of interjections, the poet expressed the hard road to Shu(蜀) extensively. Followed is the mythological legend about the road to Shu.

According to the legend, it is said that both Tsan Tsung(驩叢) and Yu Fu(魚虎), kings of the old kingdom of Shu(蜀), made an effort to build a traffic route to Chin(秦). It was at the sacrifice of five muscular men and beautiful women that only a single road to Shu(蜀) was built. And the road to Shu(蜀) was described in a tremendously exaggerated style. Taking a few examples, the poem puts concretely that six dragons, who worshiped the old sun god, couldn't pass the road to Shu(蜀), but they simply returned; that a Yellow crane(黃鶴), with whom a Taoist(道教) hermit flew in the sky, couldn't go over the road; and that even monkeys failed to go over the road. It is a rule that high mountains make the valley deep.

This is to lead to a vivid description of the water which hits against the cliff or rock and runs in twists and loops. In a nutshell, the steepness of the mountains and rivers, and the image of rapid stream of the valley were vividly depicted in terms of animals, birds or dragons. Tai Pai Shan(太白山) and Mud mountain(青泥嶺) were depicted as extremely

high to the extent that one could not even breathe and simply sank down weakly if one climbed to the top and that one could reach out to stars of the night sky. Only birds, male or female, moved back and forth in an old tree and in the moonlight only cuckoos made the empty mountain more sad. Once listening to such stories a little boy of red face turned into a gray-haired old man. The steepness of the mountain seems to be sufficiently imagined with no direct stare at the scenery. It may be concluded that the poet gave full play to his uniquely sufficient imagination. His secret method of expression lies in the combination of the general aspects such as a bird's eye view and the detailed aspects on the other hand. The poet predicted the historical facts on Chienke (緬閣) and the military rebellion on the border in the time of peaceful reign.

That is the An Lu-Shan (安祿山) Rebellion. Because of this emperor Xian Zong (玄宗) suffered an insult of taking refuge in Shu (蜀) Li Pai (李白) expressed the steepness of the road to Shu (蜀) as if his own internal feeling would be exploded like a volcano and as if the flood caused the water of valley to overflow and to shake. His excitement of feeling made more vivid the mountain and water of the road to Shu (蜀) and more harmonious the mood of the poem. In this respect, his poem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any poem of the other poets. He also made the poem more conspicuous by mixing his subjective coloring of sense, mythology and ecology of animals. It follows, therefore, that his excellent artistry of esthetic value made a great contribution in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Chinese poems.